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48호 현대불교

29

2011년 8월 10일(음 7월 11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 한생각을 잘하면 모두가 문제 될 게 없습니다

### 조상의 길을 닦아 드리는 의미

**문)** 사람이 죽으면 7·7, 49일 동안 그 길을 닦는다고 그러고 해마다 촛불제나 백중과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고 마음의 불을 밝혀 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와 그렇지 않고 닦지 않는 거와 그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답)** 차이가 많죠. 사람이 이 도리를 모르고 죽는다면 이 몸속의 업보, 그 자기가 산 것대로, 지은 것대로 업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만약에 부부 사이에 임신이 되려고 하면 그 업보와 더불어 같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보 있는 집에 또 업보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냥.

그리고 이 도리를 모르면 어떤 의식들은 그냥 자기가 살아 있는 줄만 압니다. 살아 있는 줄 알고 자식들한테, 이 집 저 집 다니던 의식들이 그냥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아, 부모가 왔는데도 대척도 없고 말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해도 들은 척만 하고, 봐도 본체만체하고 아, 이러니 얼마나 부모가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 죽은 사람이 자기가 살아 있는 줄 아는 겁니다. 의식들이. 그래 가지고는 아이, 세상에 이렇게 못된 놈들이 어디 있냐고 그냥 화를 내고 발각 뒤집으니 그 집안이 발각 뒤집힐 수밖에요. 그것은, 즉 말하자면 유전성이나 영계성, 업보성, 인연성, 그것이 저거 하면 병원에 가서 아무리 고치려 해도 안됩니다. 그건 또.

그러니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살아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냥 식구, 친척, 이런 데로만 다니면서 백 년이 가도 그대로고, 그렇게 그 집안 내에서만 뱅뱅 돌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집안에 개를 기르든가 소를 기르든가, 짐승을 기르든가 고양이 기르든가 하면 또 다시 인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보이질 않으니 까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잠자리하는 것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잠자리를 해도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거짓말 아닙니다. 자기 차원이니까.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천도제가 필요합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살아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자기 업식들이 마치 그냥 뱀으로 보인

다든가, 독사로 보인든가, 짐승으로 보인든가, 귀신으로 보인든가 그냥 모든 게 그렇게 늘비하게 쫓아다니니까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어떻게 해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제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피해서 건너 보려고 애를 써도 피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한국에서 죄를 짓고 미국으로 들어와야 할 텐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즉, 강을 건너야 모든 업식에서 벗어날 텐데 강을 아무리 건너려 해도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빠져 죽을까 봐, 뱅뱅 돌아서 숨어 다니면서 배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인제.

요즘은 비행기도 하도 타고 다니긴 합니다만, 뭐 비행기도 그 마음의 의식이 그런데 비행기를 타면 뭘 하고 안 타면 뭘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하지마는 사람의 생명 근본 자체

가, 소용돌이가 돌아가는 것을 불바퀴라고 합니다.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질 못합니다. 타 죽을까 봐, 또.

그러니까 지금 이 공부하고 간 분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 부모 조상들 제사를 지낼 때도 자손이 음식 같은 걸 이런 걸 다 차려 놓지 않아도 됩니다. 자손이 부모의 그 은혜를 생각해서 찹쌀로다가 떡 하나 둥그렇게 해 놓든지, 요즘 말로 케이크 둥그렇게 하나 해 놓든지 해 놓고 향 켜 놓고 초 켜 놓고 그리고 물 한 그릇만 떠다 놓으면 그걸로 죽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조상 자체가 모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 하는 분들은 앞으로 조상 제사 지내는 것도, 인제 찹쌀로다가 이렇게 부치지 않습니까? 부처서 한 점서 해 놓고 지내도 됩니다. 이 공부 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런데 그것이지요, 자손도 이 도리를 모르고 부모도 그 도리를 모르고 돌아가셨고, 그 의식만 남아 있다면 백중 때 아무리 갖다 놓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다 허깨비 장난이라고 아주 험담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진실되게만 하신다면 그게 다 알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 열심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벌써 안에서 딱 감음이 옵니다. '애 참 기쁘구나' 하고 그냥 저절로 웃음이 터집니다. 여복하면 아니, 산 사람처럼 구질구질하게 먹고 똥 싸고 이러는 거 하겠습니까? 그 뜻으로 우주 전체 삼천대천 세계를 한꺼번에 딱 하나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도리를 공부하는 분들은 실천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오히려 그냥 집안이 깨끗해지는 도리가 생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상 차려 놓

고 그것만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믿는 마음과 더불어 조상 마음과 돌이 아니게 거기다 맡겨 놓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우주 공간 안에 전체 들어 있는 게 자기 게 아님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넉넉지 못해서 이걸 찾고 저걸 찾겠습니까? 조상들을 그렇게 승천하게 해서 자유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말입니다.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위로는 부모 은공을 갚기 위해서고 아래로는 베풀기 위해서라고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아무리 좋은 데로 보내 주시오 해도 안 됩니다.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동일하게 될 수 있게끔 하느냐, 부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모두가 한마음으로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 무명천이 실재하는 건지요

**문)** 스님께서는 범문 중에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은 무명천에 머물러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명천이라고 하는 장소가 실재하는 겁니까?

**답)** 무명천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너무나 마음에 복수심이나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지러가 봐 가뭇 두는, 영혼을 가뭇 두는 감옥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보세요. 감옥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감옥이 왜 생겼겠습니까? 천차만별로 그렇게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감옥이 생긴 거죠. 현실에 있기 때문에 바로 무(無)의 세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배하는 것은, 만법천에서 내보내면 생사천에서 가려서 내보낼 때에 오무간지옥으로도 보내고, 칼산지옥으로도 보내고, 무명천으로도 보내고, 또 화랑지옥으로도 보내고 여러 군데로 분리해서 다 보내는 것입니다. 묘한 것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이 따로 없으니 현실에서 잘 관조하라고 했습니다. 천차만별로 사상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길을 가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지저거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나 그러고



그림 · 최주현

30면으로 계속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하고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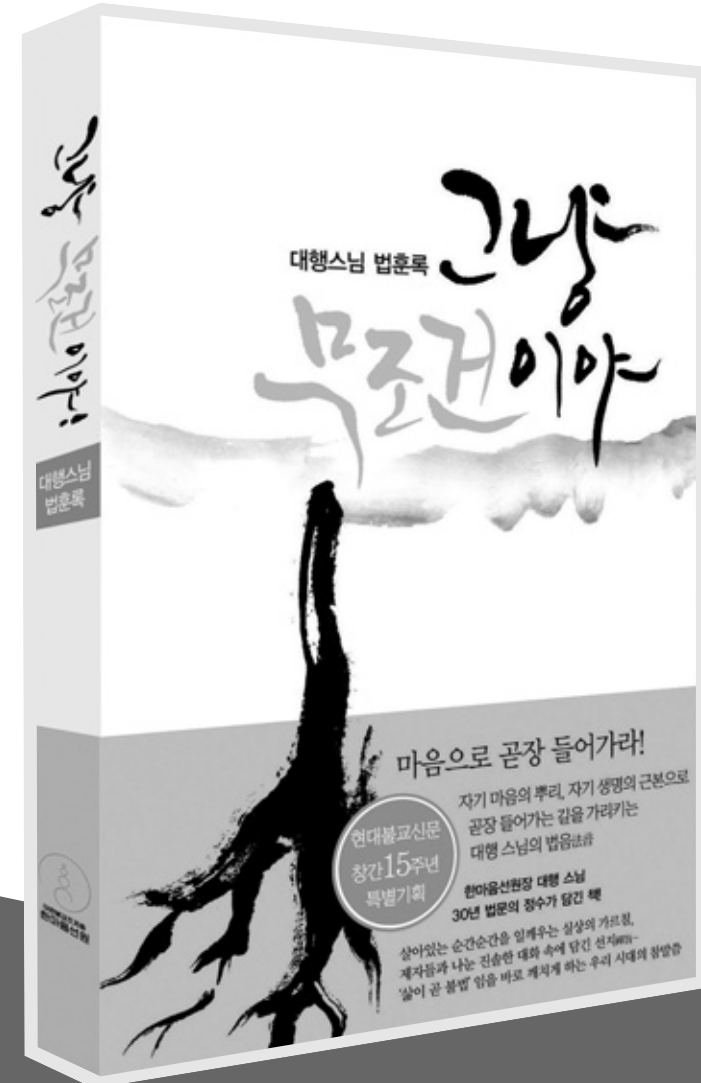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 본문 중에서



# 좀 보고도 보지 않는 법을 배워보세요

☞ 29면에서 계속

들어 보니까, “스님, 스님! 제가 까마귀에서 벗어 나지 못한 지가 지금 오백 년이 됐습니다. 한 번 까마귀로 모습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날 길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스님이 제 모습을 한 점이라도 잡춰 주신다면 저는...” 이 까마귀 모습을 벗겨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너는 까만 짓을 잘해서 그런데 어떻게 희게 만들 수 있겠느냐?” 하나가 “비록 거죽은 까마나 속살은 하얗습니다.” 이러거든요.

여러분도 참 거죽으로는 못생기고 못났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마음이 아름답고 착하고 슬기롭고 지혜롭고, 내면적으로 언제나 자기를, 자신을 믿고 만법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려면 아마 거죽은 비록 그렇지만 속은 하얗 겁니다. 백옥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죽시에 까마귀 모습을 벗겨 줬답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길 하면 옛날 얘기처럼 들으시는데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옛날이나 미래나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항상 공했다 공했다 그러는데, 그 행동 하나하나 하고 마음 잘나찰나 바뀌지 않는 것이 공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질서를 가르쳐서 질서를 지킵니까? 사생 그 자체, 까마귀 얘기 한 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인연을 만나서 서로 고생을 하고 이라는 것도 당연하지는 않습니까? 누가 갖다 준 게 아닙니다. 알로 낳는 거, 태로 낳는 거, 화(化)해서 낳는 거, 질척한 데서 낳는 그 사생이 어떻게 해서 사생으로 빠지느냐? 인간이 까마귀가 될 수 있고, 부모가 죽어서 까마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날 한 마디를 잘못해서 백 마디를 잘못하게 되고, 천 마디, 만 마디를 잘못하게 돼서 독사지옥에 떨어졌더니, 독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아무리 자기가 사람이라고 부르짖어 봐도 독사라고 그러지 누가 사람이라고 대해 주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귀먹고 눈뜨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소굴에 들어가서 마치 새끼로 태어날 수도 있으니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을 잘못하면 새 종류로 아마 태어나겠죠.

마음을 독하게 써서 독사지옥으로 떨어지고 이라는 것이 독사지옥으로 떨어지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나서 그렇게 고를 당하고 그렇게 쫓기면서 쫓으면서 땅꾼한테 붙들려 다닙니다. 이거 한 가지 말을 했다고 그래서 고깃만 생각하지 마세요. 일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어났더니 아, 몇 달 만에 다 큰단 말입니다.

사람은 어른이 되려면 십 년 이십 년 삼십 년 이렇게 가지만 아, 그거는 단번에 어른이 되거든요. 금방 크면 금방 모가지 쫓겨 죽고 걸렸다 하면 죽고 몇 번이나 죽음을 당합니까?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그런데 그것이 독사보다도 더 무서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아, 무명천(無明天)을 넘어서라.” 이러니까 이 무명천이 어디 있나 하곤 그냥 찾아다니다가 하세월을 보냈대요. 그러니 불사천(不死天)에 가지도 못하고, 넘지도 못하고, 그냥 천 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런데 왜 무명천이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명이 불을 자리가 없다는 얘깁니다. 내가 만들어서 업을 받고 애고를 당하고, 내가 구덩이에 빠지게끔 만들어 놓고는 빠져 가지고 애를 쓰는 거지, 누가 구덩이에 빠지라고 했습니까? 누가 구덩이에서 나오라고 했습니까? 누가 죄를 받으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만들어서 업을 받고 애고를 당하고  
내가 구덩이에 빠지게끔 만들어 놓고는 빠져가지고 애를 쓰는 거지  
누가 구덩이에 빠지라고 했습니까?  
모두가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어딴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귀신들이 있고,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조상이 잘못됐고 이런 겁니다. 다 이런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생각을 잘하면 모두가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무명천은 아예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음을 잘 조절하고 다스려 나가면서 자기를 믿고 찾는 것이 중요하단 이겁니다.

### 잘못하고도 남한테 뒤집어씌우는데

문) 요즘은 돈이 뭐지 정치계나 교육계나 어느 분야에서든 비양심적인 일을 저지르면서도 잘못도 인정하지 않거나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등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뭐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답) 요거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글썄, 옛날에 어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물을 요만한 상자에다가 딱 봉해서 놓고 말입니다. “애들아, 너희가 머느리를 볼 때 대대손이 이거를 내려라. 9대까지 내려라. 그러면 9대 손자에서 죽게

됐을 때 이거를 펴 보면 알 수 있느니라. 9대 손자까지 물려서 만약에 죽을 때가 되면 그 보물상자를 원님에게 갖다 드리면 살 수 있는 방도가 생길 수 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놓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9대 손자가 그 할아버지에게요. 그 9대 손자가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9대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전에 뭘 잘못했느냐 하면, 옛날에 노인네들이 계시면 이렇게 발을 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운데 좀 시원하게 하려고 발을 쳤는데 아, 이놈의 애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과실을 따 먹고 있거든요. 그 마당에서.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쳐놓고 “이거 누가 올라가서 그러느냐?” 그러고선 이렇게 쳐드는데 놀래 가지고 그 애가 떨어져서 죽었거든. 그것이 업이 된 겁니다. 죄업이. 그 할아버지가 9대조에 가서 태어날 때에 자기가 그 죄로 인해서 목숨이 달아나게 생길 그런 위험이 닥칠 때를 생각하고선 자기가 써 놓은 겁니다. 그

공부를 했으니까, 자기가 알고 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게 자기가 죽이려고 그래서 죽인 게 아닌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죽게 됐어요.

9대 손자가 그 상자를 받았는데 그만 죽게 되니까 그 상자를 가지고 원님한테 갖다 말입니다. 원님한테 가서 이렇게 마당에 서 있는데, 누가 왔느냐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 9대조의 손자라고 그러니까 “아, 그 할아버지!” 하고 그냥 맨발로 뛰어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유명했으니까. 그런데 맨발로 뛰어 내려오자 대들보가 내려앉아서 원님 앉은 자리를 그냥 덮친 겁니다. 그러니 이 손자가 원님을 살려 준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걸 받아서 원님이 턱 보니까 “자네를 살렸으니 나도 살려 주게.” 이런 거예요. 우리 9대 손자를 살려 달라 이거죠. 인제 얼른 쉽게 말해서 살려 줘라 이거예요. 지금 그 9대 손자가 바로 나다 이겁니다. 너를 살려 줬으니까 나도 살려라 이거죠. 그것도 똑같은 누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누명을 쓴 거지만 그 할아버지는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그걸 받은 거고, 이 사람도 그렇게 죽이려고 죽

인 게 아닌데 누명을 쓴 거라고요. 그래서 그 원님이 죄목을 다 생생히 밝혀서 바로 무죄로 석방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디 잘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을 비방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한테다 뒤집어씌우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남을 그냥 못살게 만들어서 노이로제에 걸리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죠.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 저 모든 것에 남의 탓을 하기 이전에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소가 말입니다, 언덕이 있으니까 가다가 언덕에 비비지, 언덕이 없었더라면 뭘 때문에 소가 가다가 비비겠소? 그와 같은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부딪치는 거지 아, 내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뭘 때문에 부딪쳐요? 그러니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려라 이런 거죠. 그러면 복이 오고 공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 생활고가 닥쳤을 때의 마음자세는

문) 우리가 살다 보면 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럴 때마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약사보살 등 나뉘대로 불잡고 기도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스님께 의지하는 분들도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스님의 가르침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떤 마음자세가 필요한 건지요?

답) 여러분 몸에 병이 있거나 가난이 있거나 우환이 있거나 유전성이 있거나 명이 짧거나, 어떤 일이 있다 하면 그 몸속에서 얼마나 많은 의식들이, 인과로 인해서 맺어진 그 고가 얼마나 많이 들쭉거리겠습니까. 그 저 자기가 생각하는 것도 그 저 봤다 하면 그걸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오해를 하고 ‘그럴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원망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좀 보고도 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할 텐데 보면 보는 대로 그냥 일일이 그냥 쫓아드는 거 있죠. 들으면 듣는 대로 일일이 쫓아드는 거. 이 습관성은 좀더 놓아야 합니다.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이 세상에 나온 탓이지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잘못했든 잘못든 모든 게 여러분의 탓입니다. 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몸속에 병고가 있다면 주인공에 놓고 ‘아, 내 한마음의 주인공 속에서 나온 거니까 주인공 속에서만이 고칠 수 있어.’ 하고 믿을 때 바로 약사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했을 때 ‘가난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과거로부터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밖에 해결할 수 없어.’ 그리고 거기 봤을 때 바로 관세음, 관세음 행을 하는 겁니다.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행을 하는 데, 실천을 하는 데 실상으로서의 우리가 그 도리를 알게 해 주신 거지, 부처님께서 입으로 이름만 부르고 외치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명이 짧을 때에는 ‘아, 명이 짧았는데 그 명을 좀 길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지.’ 할 때 바로 그것은 칠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애를 못 낳아서 애를 때는 바로 삼신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가 좋은 데로 가고 나도 아프지 않고 잘 웃을 것으로 돌려라 이런 거죠. 그러면 복이 오고 공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이게 됐다 저게 됐다 하는 것은 부처님이. 그래서 천백억화신이 부처님의 이름이요. 동방에는 아축이, 부처님이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 놓으신 거죠. 마음으로 지어 놓지 않아도 그게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거죠. 자연적으로. 동방에는 아축이요 서방에는 아미타요. 돌아서 오는, 돌아서 동방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미륵이요. 바로 사바세계는 관세음으로 이름을 지어 봤고 지천국에는 지장으로 지어 봤고 말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마음이 그렇게 이름이 된 것이니 이름 아닌 진짜 지장이 되고 약사가 되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고난이 있는 것을 내게 와서 하소하기도 하는데 그걸 재료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셔야지, 내가 아무리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흥 누고 맘 먹고 아프고 죽고 자고 하는 것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신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이 실험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어떤 큰 일이, 자갈밭이, 가시밭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커버 못합니다. 여러분이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범신이 되고 화신이 되고 보신이 되고 지장이 되고 관세음이 되고, 여러분이 약사가 되고 그래야지, 어디다가 기대고 노예가 될 것입니까? 어디다가 믿고 그렇게 기대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모르시면 죽어서도 그 차원대로에 눈도 뜨지 못하고 귀도 뜨지 못해서 아무 데나 들어가서 아무 모습이나 가지고 이 세상에 또 출현한다면 그 고를 어떻게 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그 마음 자세의 뜻을 잘 알아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전국 사찰전문 공급업체

## 다 영보이

1. 중국 운남성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북부 청정지역의 야생차업을 현지인들이 채취하여 현지 공장에서 제분화하고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제품입니다.
2. 정식 수입통관 절차 및 부산세관 식약청의 무농약·중금속 검사를 모두 통과 하였고 2010년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무농약 입증검사 실시 통과한 제품입니다.
3. 다영보이는 1996년 약 12년 이상 정성을 다해 산처로 숙성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증기로 쪄서 숙차병처리 만들었으며 철저한 관리에 의해 보관하여 부드럽고 깊은 보이차만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순수 자연 야생보이차

• 판매원 : 마하물 02)732-1520  
• 제조원 : 다 영 보 이 02)959-887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 토마토파르코오피스텔 1507호  
www.dayoungtea.co.kr / www.다영보이.kr

##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청동불 40여분 전시 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 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